

“난방비 부담 해소”... 모든 취약계층에 59만2천 원 지원

최대 168만가구에 난방비 할인... 차상위계층도 요금할인 '혜택 몰라서 못받는' 가구 최소화...중산층 지원도 검토 중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천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더해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다 44만8천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2천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늘린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올해 첫 병역판정 검사 진행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홍기환기자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줄인다... 6년來 최소치

기재부, 정규직 2만2천명+α 신규채용 추경호 "일 없는데 채용하면 세금 낭비" 고졸채용 8% 이상·장애인고용 4%로 리서치등 청년인턴 2만1천명 채용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천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줄이면서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며 "우선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천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천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2018년 3만3천894명, 2019년 4만1천32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천53명, 지난해 2만5천542명에 이어 올

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가 신규채용으로 집계돼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특이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 규모는 2만5천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년 구직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 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 등 고용회파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이래적으로 80만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예년 경기가 통상적 흐름을 보일 때 취업자 증가는 30만명 안팎이었다"며 "올해는 기술적 부분의 조정 과정이 있는 해고 실업률이나 고용률 지표로 보면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졸, 장애인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고졸 채용 비율은 지난해 7.5%

보다 높은 8%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고용률은 법상 의무고용률 3.6%를 웃도는 4%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인턴을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때 내는 토익(TOEIC)·토플(TOEFL)·아이엘츠(IELTS)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도 박람회에서 홍보한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는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 계획, 절차, 직무 특징 등을 소개하고 구직자 상담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이 중 34개 공공기관은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 형식의 '올인원 컨설팅'이 새로 생겼으며 장애인 채용 상담관, 직무·성과중심 보수관리 홍보판도 처음으로 설치됐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경북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가속도

올해 107지구 2조6610억 원 투입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등 연내 완료

경북도가 교통망 확충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올해 총 107지구 2조6610억 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고속도로 건설 2지구 5801억 원 ▲철도 건설 8지구 9953억 원 ▲국도 건설 23지구 644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6지구 1748억 원 ▲산업단지지입도로 3지구 292억 원 ▲국가

지원지방도 건설 14지구 1104억 원 및 지방도 51지구 1267억 원을 투입해 시군간 교통망을 확충한다.

올해 마무리 사업은 ▲동해중부선(포항-삼척)철도 ▲상구-효현 ▲육룡-대룡 국도대체 우회도로 ▲축산항-도곡 ▲단산-부석사 국가지원지방도 등 5지구다.

신규 착수 사업은 ▲영일만횡단고속도로 ▲문경-김천선 철도 ▲안동 풍산-서후 ▲김천 양천-대룡 등 국도 8지구 ▲문경 농업시원-종곡 ▲영덕 강구-축산 국가지원지방도 및 경주혁신원지력진입도로 등 24지구다. 앞서 영양 오기-죽파 등 지방도 11지구는 착공에 착수했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건강관리 시작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문의 : 032-890-8700

제21회 달맞이축제

국토정중앙

일시 2023. 2.5(일) 11:00~20:00
장소 국민체육센터 일원
주최·주관 양구문화원
후원 양구군

달집태우는 시간 : 저녁 7시

행사내용

- 주민안녕 및 품년기원제
- 농악시연
- 제22회 강원도노인연날리기대회
- 품물연합회 경축 공연
- 정중앙꽃놀이대회
- 읍면대항경기 (장애우 투호놀이, 뚫다리놀이, 농악놀이 경연, 떡메치기 경연 및 시식)
- 이벤트 (새해 소지 올리기, 복조리 만들기, LED 쉼놀이 만들기, 투호놀이, 굴형쇠 굴리기)
- 무료 시식 코너 운영 (뽕튀기, 와플, 팝콘, 가래떡 구워먹기 등)
- 새해 운수 보기 (타로카드 점보기)
- 군민노래자랑
- 경품추첨
- LED 쉼놀이 시연
-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및 VIP 퍼포먼스)

단신브리핑

첨단일반산업단지 자족기능 강화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를 찾아 자족기능 강화 위한 소정의 시간을 가졌다. 최 시장은 1일 첨단일반산업단지(췌산신제약 생산시설을 방문해 입주기업들과 16명의 기업대표,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기업관계자들은 첨단산업이 세종시 북부 상단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설비 투자금 지원, 제설작업 등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앞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지원

경기 수원시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택은 공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박선식기자 spspark@jeonmae.co.kr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충북 청주시는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조성기 위해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약 23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 지원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추진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실태점검단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주택시장 동향 제공과 예비입주자 사전공개제도를 통해 예측 가능한 공동주택 시장 형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청주/양철기기자 kyang5@jeonmae.co.kr

경기도 지난해 부동산거래 반토막...거래량 58.6% 급감

총거래량 23만 2729건...5월 이후 지속 감소 아파트 거래 감소세...화성시 최대·과천시 최소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2021년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

했다.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도 부동산의 총 거래량은 23만 2729건으로 2021년 43만 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 4433건을 기록, 2021년 같은 기간 20만 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 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 7604건, 1만 2138건으로 2021년 19만 7031건, 1만 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57억 6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공동주택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48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도에서 거래된 17만

3023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60%와 53%,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 가격 하락과 20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55% 대비 5%p 상승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이 평균 현실화율이 58%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

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이 현실화율이 55%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가 31일 오후 양양 설해원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이종건기자

시·군·구청장협,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촉구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 공동성명 정책협력플랫폼 역할 등 논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강원 양양군 설해원 리조트에서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생존 민생법안인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군·구 당면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정과 지역의 당면 과제를 지원하는 시·군·구 정책협력플랫폼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분과위원회는 자치조직권 강화 분과위원회, 복지 분과위원회, 탄소중립 분과위원회 등 3개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시·군·구가 제갈할 수 있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국가·광역·기초·주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군·구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정책과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토끼처럼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박영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전남도, 고흥사랑기부제 한달만에 205명 기부

10만원 기부자 85%로 가장 많아 답례품 여수갓김치·순천꼬들배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달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에 200여명이 기부금을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거주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50%로 가장 많고, 광주 40%, 기타 지역 10% 순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고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난 한달 동안 205명이 도에 기부금을 기탁했다. 답례품으로는 여수갓김치와 순천꼬들배기 등 김치류와 쌀이 각각 15%를 차지했고, 한우(8%), 한과(7%), 영광굴비(6%) 순이다.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 기부자가 85%로 가장 많았다. 배우 김수미, 김홍식 전 국무총리, 가수 김연아 등도 고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에 참여했다. 고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준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흥사랑기부금은 고흥사랑e음(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양/권상용기자 ks@jeonmae.co.kr

대전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73억여 원 긴급 지원

대전시는 난방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해 난방비 73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 3000가구에 두 달간 30만 원씩을 지원

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 지원에 빠진 276곳에도 시설 규모에 따라 두 달간 월 최대 100만 원이 지급하는 등 경로당 843곳에는 기존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두 달간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전/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지구를 살리는 놀라운 귀리

베타글루칸 3,000mg 함유 950ml 기준

핀란드산 귀리로 만든 맛있는 귀리음료 어메이징 오트



어메이징 오트 판매처



Maeil

Vegan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인증 완료

온라인 :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쿠팡, SSG.COM, 카카오프샵, G마켓, 11번가

오프라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SSG 청담, 현대백화점

매일유업 소비자 상담 1588-153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3-15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402-1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3. 2. 2.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4)

다. 공고방법 : 2개 일간지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go.kr) → 고시·공고,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게재

라. 도시관리계획(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도면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상계초)	노원구 상계동 402-1 일대	9,956	14	9,942	서교위고 제3호(88.1.26.)	

○ 건축물의 범위 변경결정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이하	35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마.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바.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내 정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누리세요

전국매일신문

광고문의 1588-5762 FAX 031-755-5653

년말 연속 수출 감소... 월간 무역적자 '역대 최대'

1월 무역적자 126억9천만달러...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반도체 44.5% 급감하며 직격탄...대중국 수출도 31.4% 줄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해 첫 달부터 전년 대비 감소하며 년 말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부의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2억7천만달러(56조9천억원)로 작년 같은 달(554억6천만달러)보다 1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589억5천만달러(72조6천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6% 줄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한 가운데 주력 제품인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직격탄을 맞아 4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다.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1월 수출이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작년 동

월 대비 44.5%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액 낙폭은 지난달(-27.8%)보다 더 커졌고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지난달 선박(86.3%), 자동차(21.9%), 석유제품(12.2%) 수출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대 중국 수출액이 31.4% 줄어 들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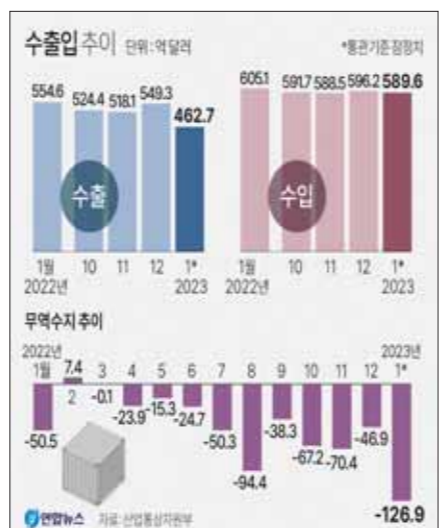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19.8%), 미국(-6.1%)으로의 수출도 줄어들었다.

수입액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지난달 158억달러로 전체의 26.8%를 점했다.

지난달 에너지 수입액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월 에너지 평균 수입액(103억달러)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26억9천만달러(15조6천억원)로 월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인 작년 8월(94억3천만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이날 통상 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수출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충남도민의 이웃사랑 나눔 열기가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다. 난방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나눔 캠페인 1인당 모금액이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경제 위기와 한파로 공공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충남도재)

충남도민 나눔열기 전국서 가장 뜨거웠다

충남도민의 이웃사랑 나눔 열기가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다. 난방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나눔 캠페인 1인당 모금액이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경제 위기와 한파로 공공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캠페인 모금 총액 및 1인당 모금액은 ▲2019년 154억 4300만 원, 7263원 ▲2020년 158억 700만 원, 7443원 ▲2021년 202억 900만 원 9528원 ▲2022년 182억 800만 원

이날 행사는 캠페인 성과 보고, 나눔 온도 공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태흠 지사는 "계속되는 경제 한파 속에서도 도민 1인당 기부금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며 기부 참여 도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같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일하는 복지, 생산적인 복지로 꿈과 희망이 있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우중 사회복지공동회모금회 회장은 "도를 비롯한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캠페인 기간 충남 전역에서 나눔 열기를 더할 수 있었다"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100만건 첫 돌파

월세 비중 42.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전세 줄고 월세 증가 "금리 부담에 매매 수요 전·월세로 이동"...매매량도 55% 감소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9천3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0만건 수준을 유지

하다 2018년 72만1천건, 2019년 80만건, 2020년 87만6천건, 2021년 95만9천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전세 거래는 60만6천686건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고, 월세는 45만2천620건으로 전년(35만2천150건)보다 28.5%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42.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3만1천846건이었고 이중 월세 거래가 9만8천810건으로 42.6%를 차지했다.

경기는 아파트 임대차 거래 34만9천711

건 중 월세가 15만1천518건으로 43.3%였고, 인전은 7만51건 중 3만1천492건으로 45.0%였다.

또 제주(62.5%), 충남(50.8%), 세종(47.5%) 등에서 아파트 월세 비중이 높았다.

아파트 외 주택 유형까지 포함한 주택 전체로 보면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83만3천522건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누계 기준 52.0%로 1년 새 8.5%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2021년 60만4476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27만2123건으로 전년 대비 55.0% 감소했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2023 전국매일신문배 전국스키대회
코리아오픈 하프파이프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 속초시의의회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속초시의의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관광 1번지 속초, 행복한 속초!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
최고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시의의회
SOKCHO CITY COUNCIL

尹 “국가 생존 뛰어난 과학인재 기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이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그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각 지역에 특화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냄으로써 대학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중앙 정부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자치 보장의 필요성, 대학의 ‘유연한 대응과 변화’도 강조했다.

회의가 열린 금오공대는 박정희 전

금오공대서 인재양성회의…‘관·학·기업 함께 성장동력 찾아야’ 설립자 박정희 前대통령 높이 평가…‘국가미래 탁월한 통찰력’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구미에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4년제 대학이다.

윤 대통령도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한, 박 대통령의 열과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술 인재를 배출한 금오공대서 인재양성전략회의의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민주, 이상민 탄핵 초읽기…‘김여사 특검’ 1인 시위도

“이상민 문책은 국회 의무”…오늘 의총서 탄핵소추 발의 결정할 듯 ‘김건희 특검’ 촉구 릴레이 시위…‘처럼회’ 40여명 밤샘 농성 토론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추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데 더해, 윤석열 정권이 민생 대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어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지까지 담은 행보로 읽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이 장관의 문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등의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률 검토를 거치는 등 그간 관련 절차를 준비해 온 만큼 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 발의 후 ‘여권 발목잡기’ 공세를 우려했던 의원들도 사실상 민생을 방치하는 정권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가 이어지는 등 검찰의 ‘야당 탄압’ 강도가 더해진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특검 추진 여론도 점점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당 검찰특별재정위원(대책위)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첫날은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법계 의원과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시위에 나섰다.

아울러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

사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와 별개로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등 당 소속 의원 40여명은 이날 저녁 로텐더홀에 모여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비롯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 민생문제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농성을 결한 ‘밤샘 토론 및 농성’도 했다.

다만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달리 ‘김건희 특검’ 추진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을 써볼 수는 있지만, 경우에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 등과 공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장은 범야권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여론전이나 물밑 작업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문수기자 pms522@jeonmae.co.kr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의원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사연기자

與 ‘檢신작소설’ 비판에 “국민은 ‘李 범죄실록’

민주 ‘김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출범엔 “정치적 상처내기 의도”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당시 그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을 고리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가 이재명 방북용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검찰의 신작소설”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누가 봐도 대북사업의 검은 실체를 담은 ‘범죄 실록’”이라고 맞받아 쳤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로의 모친 상에 축금을 보내 조문했다는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등을 거론하며 “모르던 사이라던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돈독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자라 수사를 받는다는

이 대표의 탄압 코스프레와 달리 많은 국민은 작금의 사태를 보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를 상상하며 한숨짓는다”며 “법치는 온데간데 없고 나라가 통째로 각종 이권 카르텔 집단의 놀이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관련 의혹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한 데 대해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에 입각한 ‘이재명 대표 범죄 실록’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대표뿐 아니라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 당국, 집권여당이던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

린 데 대해서도 “방탄 장의 투쟁”이라며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투쟁에 전 단력을 쏟겠다는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지게 된다. 진실은 선동으로 감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가 민주당을 잠식했다. 당내에서도 당 전체가 나서서 이 대표의 방탄 보호막이 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당 차원의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김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등 공세를 집중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수도권·청년층 늘어난 ‘80만 당원’…與전대 ‘예상밖 변수’ 되나

국민의힘 당권경쟁이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선두권 다툼으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당대회 당원투표에서 과거의 이른바 ‘오더 투표’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기존 논리가 희미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당원 규모가 크게 늘고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계속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당원외원장들의 ‘출처’가 당원 전 반으로 확산하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흐름은 이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비주류’ 안 의원이 ‘친윤(친윤석열) 후보’ 김 의원을 상대로 오차범위를 넘나들며 우세를 보인다.

세계일보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9%포인트) 결과를 보면 안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410명) 대상 다자·양자대결 모두에서 김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안 의원은 지역·연령·성별·직업별·정치성향별 등 대부분의 지표 항목에서 김 의원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고, 특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레이스 초반부터 친윤계 핵심인 정제원 의원의 ‘김장연대로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책임당원은 80만명에 육박한다.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직전 전당대회(2011년 6월·27만5천여명)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 비중은 20%대에서 40%대로 늘었고, 20~40대 비중은 20%대에서 30%

대로 올라왔다.

중도 성향이 짙은 수도권과 청년층은 전통적 지지층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영남권’·‘강경 보수’ 등으로 대변되는 기존 지지층의 성향에 거부감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

홍성수기자 HongSS@jeonmae.co.kr

NH 100년 **함께하는 100년**

키우자! 키우자! 기부심 농부심

기부하는 자부심이 커지면 농부리는 자부심도 커지니까 고향사랑기부제로 키우세요. 당신의 기부심, 농부심 농부심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농축산물을 담례품으로 드립니다

광고모델 백동민

농업진흥청장 최창익,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성민 회장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수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계 혜택과 기부금의 일부를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 시(종)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림은행·농축협
-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반(50%))
- * 기부금도액 : 1만원 연간 500만원(비영리법인 기부 70%)

하동군, 해양수산 르네상스 기반 구축 행정력 올인

경남 하동군이 해양수산 르네상스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다. 군은 이의 달성을 위해 지난해 2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개 사업을 추진했다.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어촌·어항기반시설 현대화, 양식산업 선진화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양식장 조성, 풍요로운 내수면, 잘사는 육지어부 조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의 지난해 해양수산 르네상스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살펴본다.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선정 어항시설 개선

어촌지역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2019년부터 응모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4년간 중평항, 술상항, 구노량항, 대도항, 연막항, 송문항 등 6곳이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450억여 원을 확보해 어촌·어항을 탈바꿈시키고 있다.

또 2019년 선정된 술상항과 중평항의 2022년 준공을 시작으로 대도항, 구노량항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선정된 연막항도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된 송문항은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각 항구의 특성을 살린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낙후된 시설정비와 함께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의 쾌적한 정주, 관광기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한 수산자원 기반 조성 통한 어촌지역 활력 도모

군은 해면 및 내수면의 자연생태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자원증강과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여 년 전부터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해면에 고부가가치 정착성 어종인 불락·감성돔·돌가자미·새꼬막·해삼 등 5개 어종에 2억 2000여만 원을 들여 치어 36만마리, 새꼬막 20t을 방류했다.

내수면에는 서식여건을 고려해 다슬기·참개·쏘가리·잉어·붕어·자라·재첩 등 7개 어종에 1억 6000여 만 원을 들여 재첩·다슬기 3500만패, 치어 42만마리를 방류했다.

또한 도수산지원연구소로부터 연어·은어·빙어자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17만 마리를 방류했다.

새해에도 4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어업인 수요를 반영해 연안해역에 불락·돌가자미 등 정착성 어종을, 내수면에는 붕어·참개·재첩·다슬기 등 토속어종을 방류해 수산자원이 처녀자원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풍요로운 내수면·잘사는 육지어부 육성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 어촌·어항 기반시설 현대화
252억 투입 103개 사업 추진...어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풍요로운 내수면·육지어부 육성·섬진강 생태환경 복원
양식산업 친환경·스마트화 현실화 등 수산자원 기반 조성

군은 국비 15억 7000만 원을 포함해 3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까지 하동호 일원에 유히저수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내수면 어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2020년 경남에서 유일하게 신규사업에 선정돼 도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총저

수량 3162만 8000m³)로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하동호를 전국 최대의 쏘가리 메가로 조성하고자 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서식지를 조성한다.

군은 이곳에서 특산 수산물인 쏘가리 판매·체험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들레길을 통한 휴식 공간 등 복합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내수면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판 교체 지원사업, 어선안전설비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안전한 국가하천 관리

수년간 지속적으로 생긴 섬진강 퇴적토에 대한 대규모 준설사업을 2021년 착공한 후 지난해 신비지구 퇴적토 55만 1072m³와 두곡지구 퇴적토 80만 8750m³의 준설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하동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신지지구 퇴적토 41만 7283m³의 준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연차적인 대규모 준설사업을 통해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과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유속 흐름을 원활하게 해 재해예방과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가 기대된다.

또한 신비지구와 두곡지구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재첩서식지가 복원·확장돼 재첩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양식산업 친환경·스마트화 현실화

군은 낙후된 양식방법과 어촌 인력 감소 및 고령화, 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생산 기반이 취약해지고 매년 적조·고수온 등으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양식산업을 친환경·스마트 양식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해상에는 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식장의 친환경 및 자동화를 위한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장 19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육상에는 2022년부터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친환경 수산양식 배합사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 수산양식 배합사료 클러스터는 대수산단 내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과 국립양식 사료연구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7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친환경 수산양식 배합사료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친환경·고부가가치 배합사료 제품 개발 및 보급으로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해양환경 보존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해상의 스마트 양식장과 함께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식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을 활성화해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슬로건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캠페인 - 일상생활 속 환경을 살리는 습관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지구를 지키는 환경실천, 함께 동참해 주세요!
탄소중립은 사람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2050년까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재활용이 가능한 캔, 유리, 페트 등 분리배출하기

에너지 절약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는 뽑아 사용 대기전력 차단

대중교통이용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심기

기념일 또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어 뜻깊은 날 만들기

일상생활 속 버려진 플라스틱은 들고 돌아 결국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생물들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의 바다 먹거리로 돌아와 우리 식탁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어제 버려진 플라스틱이 내일 우리의 식탁 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연과 우리를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요

ECO

모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비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일부터 만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1인당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의 생리용품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재신청 없이 바꾸어 지원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성동구와 협약을 맺은 성동구는 물론 서울시내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카드처럼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건설현장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최근 지역 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4차례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강사가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벌였다.

현재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어린이집,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랑구 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도 매주 운영 중이다.

오픈 이노베이션 참가 기업 모집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내달 17일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행정 전 분야로 행정·민원, 안전·재난, 교통, 스마트팜, 워킹스페이스 등이다.

구는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한 후 데모데이(Demo day)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협업 기회를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7일까지 이노브랜치(innobranch.com)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02-6000-5171 또는 5849)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 제작 그림책 전시회

(재)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에서 운영하는 송파위례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이 꿈, 가족 등을 주제로 완성한 그림책 전시회 '그림책 작가의 탄생'을 내달까지 운영한다.

전시회는 지난 2022년 진행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송파위례도서관 4층 자료실에서는 어린이 작가들의 작품 6권을, 5층 자료실에서는 성인 작가들의 작품 11권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중기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호실은 총 7개 호실로 '창업지원센터' 6개 호실, '청년 1인 창업지원실' 1개 호실이다.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월 13만 원~25만 원, 청년 1인 창업지원실 입주자는 월 6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창업지원센터는 2년(운영위원회 심의 후 1년 연장 가능), 청년 1인 창업지원실은 1년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산낭비 차단...68억 원 절감

미집행 노무비 환수·모바일 연하장 발송 등 경로당 난방비 지원·산후조리비용에 투입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낭비되는 예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68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 김태우 구청장이 최근 동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평소 느꼈던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서 임기 중에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직후 김 구청장은 가장 먼저 예산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구민 혈세의 누수 요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다. 과거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연말 공사, 중복 또는 과잉투자, 계약 및 공사관리 소홀, 보조금 관리 문제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문제점 파악하고 이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우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급하지 않지만 편성한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해 '해 다 쓰면 해'라고 몰아서 교제하는 공사 관행을 없애고, 남은 예산은 내년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쓰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김 구청장 취임 이후 계약원가심사를 강화해 지난해 약 17억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총 790여 건을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 전에 발주부서가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감사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김태우 구청장.

(강서구 제공)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이밖에도 평소 애용 시대적 흐름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를

강조한 결과 작지만 의미있는 예산절감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 생활폐기물 수집 대형 용역 미집행 노무비 환수, 종이 대신 모바일 연하장

발송, 연간 5만7892건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대신 문자발송, 파손 노후보도 정비비 자체 기술로 실시 설계하는 등 총 16건, 12억5000여 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아껴서 마련한 약 68억 원의 재원은 금년도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와 '사회적 약자의 동행'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김태우 구청장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과제"라며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 애용 예산 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직원들과 함께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은평구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2관왕

'좋은 정책상·평생교육사 신인상' 등 2개 분야 수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EBS 후원)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에서 '좋은 정책상'과 '평생교육사 신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국 평생학습도시의 우수한 평생학습 정책을 발굴 공유하고자 귀감이 되는 기관을 3개 분야(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지자체 협력 파트너십상, 평생교육사 신인상)로

나눠 시상했다. 구는 이번에 '자신만만, 마을시민활동가 교육' 과정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평생학습' 사업이 '좋은 정책상'을 받았다. '자신만만, 마을시민활동가 교육'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리더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구의 대표적 평생교육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을 민간협업을 통해 운영한 점이 높이 평

가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평생학습'은 구의 취약계층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 없는 공간·물리적 환경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한편 구는 이들 2개 분야 수상 말고도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있고 귀감이 된다는 평가를 받으며 '좋은 정책상' 15에도 선정됐다.

임형진기자 limhc@jeonmae.co.kr



강남구의회 고문 변호사들이 김형대 의장(좌측에서 2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평구의회 제공)

강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위촉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전날 의정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설·입법연구 등 자문을 위해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이영대(연임·법무법인 코리아), 이상목(연임·법률사무소 소울), 강철구(신규·변호사 강철구 법률사무소) 총 3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령해설의

자문,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 관련 연구과제 등의 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형대 의장은 "자문 변호사 위촉으로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고 의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바탕이 된 조예일법 및 법률적 사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 활동으로 기초의회 발전에 일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구로구-국방부 '내 고장 영웅찾기' 결실 맺다

고 최성용 상병 무공훈장 73년 만에 되찾아... "국가 위해 헌신한 분들 최대한 예우"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6·25 참전유공자인 고 최성용 상병의 유족에게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 최성용 상병은 1949년 입대해 6사단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공을 인정받아 1950년 12월 30일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채 1958년 전역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73년 만인 1월 30일 고 최성용 상병의 아들 최학수 씨에게 훈장을 대신 전달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6·25 무공훈장 찾아가기 조사단장 신기진 대령과 면담을 진행하고 조사단의 탐문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늦게나마 훈장



문헌일 구로구청장(오른쪽 세 번째)이 고 최성용 상병의 유가족에게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대리 수여했다.

(구로구 제공)

을 전달해드리게 돼 다행이고 영광스럽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구로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내 고장 영웅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로구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가기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10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빈집 점검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진수)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빈집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한남2·3구역은 점검1반(반장 재정비총괄팀장), 한남4·5구역 점검2반(반장 재정비사업팀장)이 점검에 나선다. 1월 현재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번호관을 부착한 공가는 총 165개소다.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은 한남동·보광동·이태원동·동빙고동 일대를 아우른다. 올 3월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앞둔 2구역(보광동 272-3번지 일대) 내 18개소,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3구역(보광동 686번지 일대) 내 122개소, 이달 서울시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가 예정된 4구역(보광동 360번지 일대) 내 13개

소, 한강 조망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5구역(동빙고동 60번지 일대)에는 12개소가 공개로 관리중이다.

정기 점검은 1분기(2~3월), 2분기(5~6월), 4분기(11~12월)에 각각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 실시한다. 집중호우, 명절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 출입문 폐쇄 여부, 전기·가스 차단, 생활쓰레기 방치 여부, 균열·노후 및 붕괴위험 육안 점검, 거주자 주거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관리상태가 미흡한 건축물은 소유자, 관리자, 조합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가의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앞장 공동주택에 종량기 확대 보급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보급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앞장선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보급 사업'을 시행해 관내 60세대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52개의 공동주택에 종량기 553대를 보급했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종량기 설치 전과 후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약 48%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총 2억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동대문구 유치원연합회, 따뜻한겨울나기 성공 기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날 동대문구 유치원연합회(회장 김승현)가 관내 유치원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겨울나기 성공 944만 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사립유치원 16개소의 임직원과 원아들이 직접 마음을 담아 마련한 성공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보건소 건강상담 프로그램 운영

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은 최근 공단 대회의실에서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마음건강상담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우울증 및 직장인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와 협업하여 임직원 사전 설문지 작성 및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공단은 이번 상담을 통해 후속관리가 필요한 임직원에게는 강남구가 지정한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통해 심층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영상크리에이터·SNS 홍보단 모집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종로 고유의 역사·정체성을 토대로 미래를 지향하는 모델 '종로 모던'에 발맞춰 구정 홍보에 함께할 영상·SNS 콘텐츠 창작자를 모집한다.

'종로 영상크리에이터'는 본인 유튜브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영상 제작이 가능한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직장, 학교 등에 다니는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20일까지 구 누리집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작 영상 1편과 함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또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SNS 콘텐츠 홍보단'을 모집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으로 구분에 신청 받으며 15일까지 네이버폼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난방비 사각지대 10만 원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난방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비 4억1500만 원을 전액 투입한다.

정부지원 대상에 미포함돼 어려움이 가중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 2448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 지원액 2억4480만 원은 전액 구 예비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어르신복지관 3개소에는 1800만 원을, 한과 컴퓨터 지정돼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관내 구립 경로당 61개소에는 구비로 월 10만 원씩 5개월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별 정원에 따라 월 10~20만 원씩 3개월간 총 9825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에는 900만 원, 청소년 이용시설 3개소에는 600만 원을 지원한다.

치매조기검진·영양플러스사업 실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치매조기검진', '영양플러스사업' 등 품평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어르신들의 치매검진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치매 상담, 조기 검진, 치매 예방교육·인식개선 홍보 등 '치매 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민은 누구나 송파구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인지선별검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관내 취약계층 임신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송파구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매월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중기·소상공인 최대 2억 원 융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연 1.8%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1년의 거치 기간 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전국 최초로 골목길 신개념 교통안전 시범사업인 '골목길, 언덕길 방향주의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민선 8기 '안전한 도시' 공약 사업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골목길 교차로 및 양방향 언덕길에서 접근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위험 방향을 알려주는 '다방향 위험 경고 신호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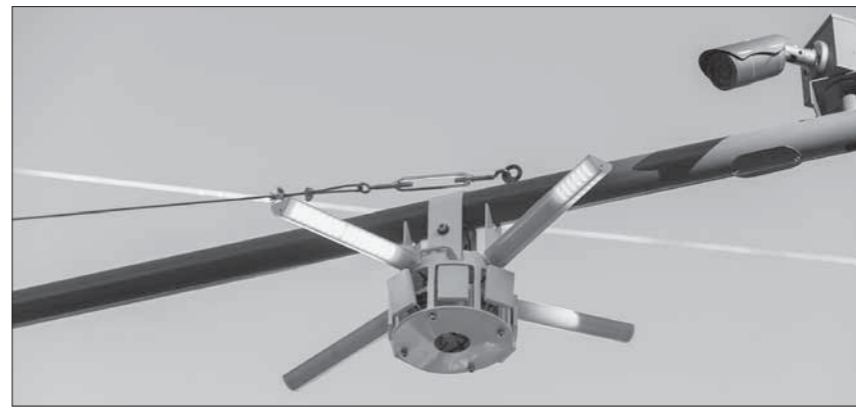
'방향주의 알리미'는 골목길에서 동행자와 차량,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동 객체를 감응식 레이더 센서로 즉각 탐지해 LED 점멸을 통해 진행방향을 사전경고한다.

감응식 센서로 이동 객체 실시간 탐지 LED 점등·전광판에 위험 사전 경고 좁은 골목·시아좁은 언덕길 사고 예방

언덕길의 경우, LED 점등은 물론 전광판에도 두 가지(보행자, 차량)로 구분 표시해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레이더 센서는 최대 오거리 동시탐지(30m) 성능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기존 CCTV 기둥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어 기기 1대당 약 1000만원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국 최초 신개념 교통신호체계 '골목길 방향주의 알리미' 현장.

(양천구 제공)

보인다. 아울러 향후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운송수단, 시간대별 골목길 통행현황 등 빅데이터의 수집, 활용이 가능해 구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구간은 목동 일대 골목길(목동중앙서로 11길 48)과 언덕길(목동중앙본로1길 16) 총 2개소로, 협소한 골목길 사거리와 양방향 가파른 언덕길이 포함된 상거리 교통위험 지역이다.

이제 구청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골목길 교통안전 확보는 '안전도시 양천'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신개념 골목길 신호체계가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스마트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강북구 "민원현장 강화"...조직개편 단행

환경순찰팀, 민원순찰팀으로 변경...현장민원 신속처리 현장민원 대응반 운영...초기단계 민원 모니터링 강화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늘어난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환경순찰팀을 민원순찰팀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속한 민원현장 파악 및 구민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사항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장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원은 구청 홈페이지 새울전자 민

원장구 및 '구청장에 바란다'로 신청할 수 있고, 120 다산콜센터, 구청 방문·유선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민원이 담당부서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현장확인 후 담당부서 변경이 필요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바라는 주민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구청측 설명이다.

이에 새롭게 구성된 민원순찰팀에서는 현장민원 대응반을 운영해 초기단계에서부터 민원을 모니터링해 정확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파악된 현장정보와 민원인 요구사항 등을 전달한다. 여러 부서가 함께 처리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조율 및 처리방향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장민원 강화 외에도 ▲공공감동 및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유기한 민원 처리실제 점검 ▲방문민원 만족도 평가 ▲민원 조정능력 향상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수기자 HongSS@jeonmae.co.kr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창단...박찬숙 감독 선임

이달 선수단 구성·3월 공식창단... "스포츠도시 브랜드 강화"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현)는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농구단 창단에 앞서 전발 한국 여자 농구 레전드 박찬숙씨를 농구단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성현 구청장은 이날 구청장실에서 박찬숙 전 국가대표 여자농구팀 감독에게 여자농구단 초대 감독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감독은 고교 1학년 때인 1975년 당시 국내 최연소 여자농구 국가대표로 발탁된 후 1979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은메달과 1984년 LA올림픽 은메달(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구기 종목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이후 국가대표팀 코치와 감독, 대한체육회 부회장,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 한국여자농구연맹 경기운영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실업농구연맹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감독은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초대 감독에 선임돼 기쁘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영원한 농구인으로서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아부عت다"고 말했다.

구는 내달 중 선수단 구성을 마치고 3월 중 공식 창단할 계획이다. 구는 여자농구단이 출범하면 서울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유일한 단체 구기종목 팀이 된다.

이 구청장은 "한국 여자농구의 독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오른쪽)이 한국 여자 농구의 레전드 박찬숙 전 국가대표 여자농구팀 감독에게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초대감독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대문구청 제공)

보적인 존재인 박찬숙 감독님께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창단이 학교 운동부와 엘리트 체육, 스포츠 여가 문화와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고 지역의 대표하는 성공적 농구단 운영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서초구, 전국최초 만 84세까지 대사증후군 관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최초로 만 84세 어르신들까지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사플러스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관리센터는 기존 만 20세부터 만 64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올해부터 대상 연령을 상향해 만 65세부터 만 84세까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대사플러스 20' 사업은 10년 이상 절

어진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연장을 반영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건강수명이 76.2세, 기대수명은 84.75세(2020년 서울시 기본통계)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기존 대비 20세 연령을 높인 선제적인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서비스를 주 1회 시범 운영한 결과,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대다수 발견된 것이라는 당초 예

상과는 달리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의 42%가 질환이 없는 예방적 건강관리 대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될 '대사플러스 20' 사업은 어르신의 건강 위험요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4종 검사 ▲복부둘레 측정 및 체성분 검사 ▲모션센서 동작 인식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미러 운동 등 1:1 맞춤형 상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관·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도 진행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eesu@jeonmae.co.kr

성북구, 동별 지역밀착 신년인사회 개최

현안사업 추진 현장 방문 즉석에서 구청장 질의응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역밀착형 신년인사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오는 17일까지 20개 전 동을 순회하며 주민 생활현장을 찾는다.

신년인사회가 열리는 동은 구청장이 1일 밀착형으로 지역을 살핀다. 현안

사업이 추진 중인 현장을 방문, 구 관계자의 사업 추진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즉석에서 질문을 하면 이승로 구청장이 직접 답하고 설명한다.

또,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주민 주도로 펼친 사업과 미담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는 새해인사를 나누는 소통, 화합의 자리를 넘어 올 한 해 주민 중심의 참여행정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강동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동안 공무원 32명을 6개소로 편성, 24시간 산불위험지구, 상세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방지 및 진압을 위해 강동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지적으로 산불진압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등산객의 담뱃불, 소각 부주의로 인한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게시하고 구민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상 푸른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산림을 지켜 구민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산림 자원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eesu@jeonmae.co.kr

마포구, 상암동~강서구 잇는 8762번 버스 개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일 상암동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버스 노선 8762번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상암동은 그동안 서울 강남권과 강서권을 잇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강남 및 강서 등으로 출·퇴근하거나 이동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상암동 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책' 마련을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지정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왔다.

이번에 신설된 8762번 버스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상암초등학교~누리

폼스퀘어·MBC·상암월드컵파크 7단지~가양역 구간으로, 총 운행 거리는 13km이다.

운행요금은 지선버스 요금과 동일하며 평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암동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김태우 강서구청장, 장애인부모연대와 면담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모듬과 면담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누수 요인을 꼼꼼히 살펴겠다"며 "절감된 예산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예방접종 업무 재개

인천 계양구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예방접종 업무를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 업무재개로 구보건소와 장기보건지소에서 성인 B형간염 접종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4시이며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계양구보건소 430-7878, 장기보건지소 450-6890)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부평 미래 발전 정책 제안 공모

인천 부평구는 오는 28일까지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도 부평 미래 발전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 주제는 주민 소통 및 협력 정책, 부평 문화도시 발전 정책,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아동 진화 도시 조성 정책 등 '부평의 미래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이다.

제안된 의견은 부평구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제안 신청은 부평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 내 '제안 신청하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 이메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인공지능융합메이커 강사 양성 교육 진행

인천 연수구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융합 메이커 강사 양성 교육'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로보메카와 연계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코딩, 인공지능, 로봇제어 등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및 메이커 체험형 직무교육과 강사 소양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한 교육과정 수료 후 전문자격증 취득과 방과후 학교, 진로 체험 분야 등의 강사로 진출할 수 있는 취업 기회도 주어진다.

취업 희망하는 만18세이상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홈페이지(공지 사항 게시판)를 참고하거나 일지리정책과(032-749-847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인천 옹진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옹진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사업성과 보고와 올해 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자문,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법,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에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드림스타트 아동 500여명을 대상으로 필수 서비스 5종, 맞춤형 서비스 8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성 부군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올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골목상점 1016곳과 위기가구 발굴 추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곳의 '골목상점 성장가'를 지정한 인천 서구가 골목상점 1016곳과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구는 최근 골목상점 성장가 연합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골목상점 성장가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홍보뿐만 아니라, 위기에 놓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지난해 인천지역 수출실적 543억 달러...역대 최대

인천시는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러·우전쟁,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지난해 인천지역의 역대 최대 연간 수출실적 54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은 2021년 460억 달러로, 18%나 늘어난 규모다.

인천지역 수출의 팔목할 만한 성과의 주역은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다. 반도체 분야 수출은 지난해 대비 37.8%가 늘어난 16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 전체 수출의 약 30.9%에 달한다. 수출 비중이 큰 후공정(패키징)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실적 증대를 견인하고

2021년 460억 달러로 18% 증가...수출 1위 품목 '반도체' 유정복 시장 "중소 3286개사 해외 판로개척 등 초석 마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쾌거는 그동안 시의 중소기업 수출 증대 지원 사업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수출지원 정책 업무평가 결과, 17개 시·도 중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무역의 날 행

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유정복(사진) 시장은 "지난해 6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중소기업 3286개사에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인프라 확충 등 수출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 최대 실적 달성에 초석을 마련했다"

<上>



고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 19 엔데믹 전환이라는 해외시장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하던 해외 판로개척 사업을 대면사업으로 전환, 동남아 및 일본,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9회에 걸쳐 102개사를 해외 시장 개척단으로 파견했다. 또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지원 10회(110개사 참여), 전시상담회 6회

(80개사 참여) 추진 등은 2021년도 대비 18.2% 증가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543억 달러 수출 달성에 큰 몫을 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인 비즈니스케이(https://bizok.incheon.go.kr)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문 사항은 인천시 산업진흥과로 문의(032-440-4282)하면 된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신설 학교 개교 추진 현장 점검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3월 개교 예정인 서로공유치원, 아람초등학교, 무원중학교 개교 진행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개교추진점검단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연일 매서운 한파에도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애쓰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시설 공정률과 급식 등 분야별 추진상황을 검토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강구했다. 김경애 교육장은 "신설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이 만난 사람 (上) 허식 인천시의회의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시 집행부와 협력 추진”



공항철도, 제4경인고속도로, 동인천역세권 개발,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제2의과수환도로, 배곧대교 건설, 송도연세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제2인천의료원 개원 등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는 물론, 군·구 및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바이오, 수소, 항공 정비(MRO), 해양산업, 재생에너지,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재외동포청 유치, 2025 APEC 인천 유치 등을 위해 시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허 의장은 "시의회의 의장협의회 및 국회의 협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및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 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 2건, 대통령령 및 시행령 3건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허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소속 상근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절, 생일 등 선물, 축의·부의 급품 대상은 소속 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옹진군, 서해5도 관공선 기름값 작년비 10% 상승

올 예산 지난해와 같은 20억 편성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유가 추세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해역에 투입되는 관공선의 기름값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올해 서해5도 어민들의 어업 지도를 하는 관공선 7척 관련 예산 20억 원 가운데 유류비가 10억 5000만 원(52.5%)을 차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관공선 유류비 9억5000만 원보다 1억 원(9.52%)이 늘어난 수치다.

유류비를 뺀 나머지 관공선 관련 예산 9억5000만 원은 선박 수리비와 유지보수비로 쓸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예산 추가 경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와 선박 수리비를 포함한 각종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서해5도 관공선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20억 원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군은 가파른 유가 상승으로 선박 기름값이 올라 예산이 부족해지자, 관공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시에 요청해 유류비 명목의 1억 원을 추경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선박 검사를 받아야 할 관공선이 많아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서해5도 해역을 관할하는 어업지도선 7척 가운데 4척은 선령이 25년 이상으로 노후했다. 지난해 대청도 담당 어업지도선은 수리비만 3억 원 넘게 들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유류비를 더 편성해야 하지만 유지보수비를 고려해서 예산을 맞췄다"고 말했다.

인천/맹창수 기자fchcs@jeonmae.co.kr



세미티엘에스 윤경원 대표, 중구 새마을회에 장학금 전달

세미티엘에스 윤경원 대표(사진)가 최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인천 중구새마을회에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윤 대표는 현재 중구새마을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정면 무료급식 봉사과 집 고쳐주기, 아동·청소년 그리고 다양한 계층 등 지

역 주민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중구새마을회 관계자는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는 윤경원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인재육성을 위해 선뜻 나눠주는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전문건설협 인천시회 '착한 쌀소비운동' 동참

지역쌀 구매독려 등 진행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쌀값 폭락과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농민을 응원하기 위해 '착한 쌀소비운동'에 동참했다. 시회는 1일 강화도 마니산 입구에서 강화쌀 2t(10kg 200포)를 구매, 200개 회원사들과 함께 지역쌀 구매독려와 지역농민돕기운동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인천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쌀 소비를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의 다양한 농특산물 소비촉진에 동참할 계획이다.

지문철 회장은 "인천의 1500개 회원사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쌀소비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쌀값 폭락과 쌀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도성훈 인천교육감, 방송인 조다난 홍보대사에 위촉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1일 방송인 조다난을 2023년도 인천교육청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한국으로 건너온 조다난은 인천용정초등학교에 입학, 6학년까지 재학했다.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 중이다. '라디오스타',

'전지적참견시점', '유 퀴즈 온더 블록', '벌거벗은 세계사'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새로운 홍보대사인 조다난은 앞으로 시교육청 공익캠페인이나, 이미지 광고를 통해 활약할 예정이다. 조다난의 활동은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소개된다.

조다난은 "인천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해주어 감사하다. 교육청의 얼굴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여러 공익활동을 함께 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 교육감은 "조다난과 함께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인천교육의 모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

충남 보령시는 올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이상 법정 민원에 대해 단축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민원처리 단축률 목표 67%로 설정해 월 최대 단축률 82%를 기록하는 등 평균 단축률을 70.25%로 마무리해 목표한 67%보다 2.75%를 웃도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시청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부서 세분화를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서산시, 가설 건축물 도면 작성 원스톱 '호응'

도면 무료 작성·제공·신고까지...설계비 1억1400만 원 절감

충남 서산시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도면을 무료로 작성·제공하는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은 2021년 348건, 2022년 38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 382건의 도면을 작성·제공해 설

계비용 약 1억1400만 원을 절감했고 당일 도면 작성·제공 후 다음 날 신고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원스톱허가과 건축신고팀에 방문상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원스톱허가과에 문의하면 된다.

부석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평소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절차도 번거로워서 하지 못했었다"며 "시에서 도면도 작성해주고 신고 처리 절차까지 도와줘 쉽게 해결해 만족했다"고 말했다.

김영호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농업인들과 귀농인들의 농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시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한성규기자 hansg@jeonmae.co.kr



강원도의회, 오색식도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진중호)는 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에 대한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춘천/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모종1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충남 아산시시는 모종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모종1지구는 총사업비 367억 원이 투입됐으며, 민간(조합)에서 추진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13만2570.9㎡, 1218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2022년 12월 공사 완료를 거쳐 이번 공공시설물 인수로 주거 용지 7만2849.8㎡(54.9%)와 도시 기반시설 용지 5만9721.1㎡(45.1%)의 모종1지구가 완성됐으며, 공동주택 927세대가 오는 8월 입주 예정이다.

아산/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

강원 삼척시는 35개소에 발열 벤치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동 지역 10개소와 읍·면 교통편의 취약지역 25개소 등 35개소이다. 시는 이달 초까지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발열벤치가 설치되면 겨울철 추운 날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복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320억 투입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건립 추진

"지원센터 국가관리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대"

충남 서천군이 블루카본 연구 및 실증화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블루카본은 해양과 갯벌이 흡수하는 탄소로 육상 대비 흡수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높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화의 글로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 320억 원 이상 투입해 군 갯벌 일원에 국가주도의 탄소중립 실현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갯벌 해양생물 기반 블루카본 연구 및 실증화시설, 교육·체험 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 10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했다.

군은 지난달 해양수산부, 충남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과 건

립사업에 대한 1차 회의를 거쳐 TFT를 구성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군은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가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실증화 기술개발, 교육·체험, 전시 콘텐츠 등 국가관리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는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탄소중립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말했다.

서천/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서천군 '탄소중립 거점도시'로 도약 박차

천안시,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 지원한다

충남 천안시가 경로당 750개소에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예산 2억1000만 원을 확보해 각 경로당 냉난방비를 28만 원 증액 지원한다.

을 겪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은 물론 취약계층 집합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난방비 급등 등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10% 지급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

2억 1천만 원 확보...경로당별 28만 원 추가

취약계층 점검·사랑카드 캐시백 한도도 늘려

올해 각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은 연 185만 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연 160만 원 대비 25만 원 증가했으며, 난방비 지원액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만5000원 인상한 11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이 외에도 한파로 어려움

기도 했다. 박상돈 시장은 "매서운 한파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안/김석용기자 syk@jeonmae.co.kr

동해시,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95대 증차

강원 동해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지난 2020년 10대, 2021년 30대, 2022년 50대 등 최근 3년간 보급된 수소전기차는 총 90대로, 올해는 보급 대수를 95대로 대폭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95대의 수소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1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차량 제조사에 직접 지원하

게 된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대상자에게는 10대를 우선 배정하고 일반인에게는 85대를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등으로, 최근 2년 내에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동해/이교희기자 leekh@jeonmae.co.kr

춘천시,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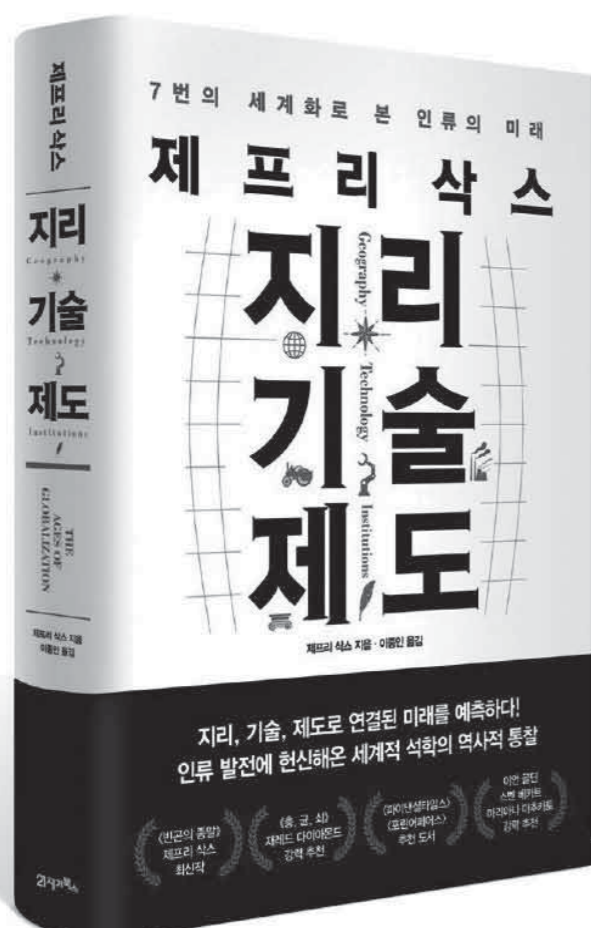
강원 춘천시는 풍수해 보험,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2021년 460건에서 2022년 3132건으로 증가했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 등이며, 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이다.

1회 가입비(분납 가능)로 1년을 보장 받으며 2~3년짜리 상품도 있으며 총 보

험료의 70~91%를 지원하며, 기초·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단독주택과 소상공인의 자부담은 총 보험료의 9% 수준이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춘천/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력 추천!
- ★ 현존하는 '경제의 神' 제프리 삭스의 위대한 통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세계적이다"

7만 년 인류 역사를 주목해야 할 위기의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생존 지침서!

지난 7만 년의 인류 역사를 관통한 단 한 권의 책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저자

인류의 미래에 대한 교훈과 희망에 대한 감동을 준다.
- 고든 클리크, 옥스퍼드대학교 지리환경대 교수

21세기에 반드시 읽어야 할 생존 지침서!
- 미로슬라우 라이치크, 전 유엔 총회 의장

〈파이낸셜타임스〉
〈포린어페어스〉
추천 도서

7번의 세계화로 본 인류의 미래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

제프리 삭스 지음 / 이종인 옮김 / 21세기북스 펴냄 / 32,000원

21세기북스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경남 합안군은 1일부터 2023년 통합 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규·재발급이나 재충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재충전돼 바로 사용 가능하다.

이용 가능 분야는 ▲문화(도서, 음악, 공연, 영화, 미술, 문화체험) ▲관광(교통, 여행사, 관광지, 숙박) ▲체육(관람, 용품, 시설) 등이다. 올해 키즈카페와 허용 분야 내에서 교환되는 상품권(영화관람권,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등) 구입 등 사용처가 확대됐다.

합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농업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목포무안신안지사는 2023년도 농지은행사업 예산 279억 원을 확보해 고품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사는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182억 원 ▲자연재해,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65억 원 ▲과원매매·장기임대차 지원을 통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4억 원 ▲60세 이상 고품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사업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28억 원의 예산을 농업인의 사업신청을 받아 영농기 이전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권상홍기자 ks@jeonmae.co.kr

쾌적한 도로망 확충 재검토

경북 예천군이 쾌적한 도로망 확충에 적극 나섰다.

군은 '신도청 외곽도로(모야열가-홍구동사거리) 개설사업'에 5억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예천 중산교차로-청북간 도로 확·포장' 12억 원, '호명 배승-오천간 도로 연결사업'에 6억 원을 각각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총사업비 100억 원인 도 직점사업 '예천-예천IC간 4차로 확·포장공사'를 오는 2024년 착공 목표로 현재 편익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 53억5000만 원을 들여 군 도사업 4개 지구와 지역현안사업 1개 지구, 농어촌도로 정비 13개 지구에 대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예천/ 장세천기자 jangsch@jeonmae.co.kr

군정 성과향상 TF팀 회의 개최

전남 진도군은 군정 성과향상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TF팀은 고향사랑기부제, 인구늘리기, 기후변화대응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3개 분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로 고향사랑기부제, 인구늘리기, 기후변화대응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실천 방안 등에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

군은 이날 수립된 의견을 토대로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 상황 보고 등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 김원일기자 ky@jeonmae.co.kr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전북 순창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일반 10가구에 10만 원을, 저소득층 5가구에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가내 주택 소유자 및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거주자 해당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정월대보름, 순천 낙안읍성으로 오세요”

성곽돌기·달집태우기·인절미·떡국 나눔·전통공연 등 풍성

전남 순천 낙안읍성이 오는 5일 정월대보름 행사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무료로 읍성을 개방해 김빈길장군 추모제를 시작으로 임경업장군 추모제와 당산제를 지낸다. 이어 인절미·떡국 나눔, 전통 공연과 햇불 들고 성곽돌기, 달집 태우기 등이 진행된다.

햇불 들고 성곽돌기는 당일 선착순 200명을 모집해 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달집태우기는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이 쓴 소원지를 제와 당산제를 지낸다. 이어 인절미·떡국 나눔, 전통 공연과 햇불 들고 성곽돌기, 달집 태우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정월대보름날 음식을 서로 바뀌어 먹었던 옛 추억과 순천 낙안읍성을 찾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나눔행사와 전통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나눔은 사단법인 낙안읍성보존회, 낙안면행사추진위원회, 낙안면이장단협의회, 낙안면부녀회, 사단법인 낙안읍성관소리보존회, 사단법인 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 등 낙안읍성과 낙안면 주민들이 함께 마련했다.

놀이마당에서는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오후 1시부터 낙안면 마을 대항 옷놀이대회를 개최하여 즐거운 불거리를 선사한다. 또한 읍성 내 6개소 초가집에서 대장간, 짚공예, 염색, 국악, 서각 등 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노관규 시장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061-749-8844)로 문의하면 된다. 서경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광주 남구 '제40회 고싸움놀이 축제' 개최

불거리·먹거리 등 다채

광주 남구는 3일부터 5일까지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고싸움놀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3일 연을 만들어 날리는 체험 활동을 비롯해 고누 대회, 전국 5인 줄다리기 대회 예선전, 전통 연희놀이인 버나 놀이와 사자탈춤, 큰 깃발 놀이, 설장고, 소고춤 무대 등이 펼쳐진다.

4일 오전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인 봉영오광대놀이와 줄타기, 판소리, 탭댄스 및 춤추는 별주부전 등 퓨전국악 공연이, 오

후에는 전통문화연구원 일부의 사물놀이 공연과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국악인 김산육의 무대, 파이어 댄싱,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및 당산제 등이 이어진다. 5일에는 퓨전국악 태평환 소리와 가야금 병창 황승욱,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2호 남포북춤, 북청사자놀음 무대가 마련된다. 구 관계자는 “고싸움놀이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 변대중기자 Beom@jeonmae.co.kr

구미시, 영세업소 외식 환경 선제적 대응 나섰다

입식테이블 설치 등 확대

경북 구미시가 변화하는 외식환경의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15개소를 선정, 좌식 식탁을 입식 테이블과 의자로 교체 지원을 했으나 부족한 재원으로 대다수 영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예산을 증액,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외식업소 테이블 리모델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영영신고 후 2년 이상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최소 5개(20석) 이상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로 전년도 매출액 적은 업소, 모범 음식점이나 구미맛집,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업소가 우선 대상이다. 신청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 원, 전체 금액의 30%는 자부담으로 시 홈페이지(www.gumi.go.kr)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미/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박동식 전남 시정시장이 1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자매·교류도시에 기부금을 기탁했다. (사진제공: (사)시지회)

박동식 사천시장, 자매·교류도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정읍시 등 5개 시·군에 각각 10만 원씩 기탁

박동식 전남 사천시장이 1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자매·교류도시에 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날 박 시장은 자매 도시 등 전북 정읍시, 경남 임천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용인시, 경북 고령군 총 5개 시·군에 각각 10만 원씩 총 50만 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특히 그는 기부금의 30%로 제공되는 답례품은 자매·교류도시의 대표 특산품으로 선택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자매·교류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게 돼 기쁘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자매·교류도시의 결연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출향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박중봉기자 bj@jeonmae.co.kr

산청군,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본격화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운영

의료비 부담·이동 불편 해소

경남 산청군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매월 4~6회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보건의료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와 함께 임신부를 비롯한 가입·비가입 여성 및 가입 여성 배우자 임·비가입 여성 및 가입 여성 배우자 임·비가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수제맥주 브루어리

를 대상으로 하는 수제맥주 브루어리 등 배우자 검진도 진행한다. 앞서 군은 지난달 11일 산청군보건의료원을 시작으로 17일 단성보건지소, 18일 신안보건지소, 25일 산청군보건 의료원 등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오부보건지소를 비롯해, 차왕, 함양, 생초, 덕산, 가계, 금사, 문대, 중산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료할 예정이다. 산청/ 박중봉기자 bj@jeonmae.co.kr

고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2024년준공

지역 특색 반영 거점공간 조성

전남 고흥군은 구도심지역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후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뉴딜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하드웨어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고흥사랑방, 수제맥주브루어리 등 공간축복 3동 신축과 기존 건축물 1동을 리모델링하는 고흥커뮤니티 라운지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은 이달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제맥주 브루어리 교육과 함께 도시재생대학 2기 개강 등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육성 콘텐츠로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특히, 부산 고릴라브루잉과 함께 진행하는 수제맥주 브루어리 교육은 당초 20명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마감돼 10명을 증원하는 등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남원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성공개최 상호협력 협약체결

전북 남원시는 1일 '2023년 남원 FAI 월드컵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를 윈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항공회 및 한국도형항공협회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챔피언십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6일에서 9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드론 추구를 포함한 각종 레저스포츠가 마련된다.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경북도,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혈액수급 안정화·기부문화 확산 유도

경북도는 1일 올해 첫 번째 공직자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공직자들의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바쁜 업무 중에도 많은 직원들이 단체헌혈에 나서게 됐다. 또 공직자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지사와 연계해 분기별 단체헌혈 시행 및 각 시군별 헌혈관장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요청하는 등 헌혈을 독려하고 있다.

헌혈이 가능한 연령은 16세에서 69세까지로 65세 이상은 60세~64세까지 헌혈유형참여자가 가능하고,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오태원 의령군수는, 자매도시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오태원 의령군수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제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오군수는 최근 자매결연도시인 울산시, 사천시, 무안군에 기부하고 자매도시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의령/ 최만규기자 chp@jeonmae.co.kr

하동군, 명품 고로쇠 위생적 품질향상 '안간힘'

채취입가 지원 확대

경남 하동군은 고로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군비 1억 7000여 만 원을 투입해 고로쇠 채취 입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군은 올해 하동 명품 고로쇠의 위생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항공회 및 한국도형항공협회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챔피언십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6일에서 9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드론 추구를 포함한 각종 레저스포츠가 마련된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정선군, 공립치매 요양시설 하반기 운영

75억 투입·신월리 일원에 건립...공정율 80%

6월 완공 목표...치매전담실·물리치료실 등 구비

강원 정선군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75억 원을 투입해 신월리 896-4 외 5필지 일원에 연면적 1882㎡,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치매전담실을 비롯한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린넨실, 면회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등 57명의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하고 있다.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에는 입소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에 입소자 편의를 위해 각 요양실마다 화장실과 물품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고 면회실, 요양보호사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치매 전문 간호사와 요양 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 등을 배치해 운동 요법,

현실 인식 훈련, 가족 교육, 인지 자극 활동, 음악 활동 등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이 들어서면, 치매 노인들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가족들의 요양 부담 경감 등 선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선군의 노인 인구는 1만 834명으로 전체 인구의 31.1%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치매 노인은 764명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이를 수용할 요양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속초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본격 추진

취약계층 대상 자립지원

희망계좌 I·II 신청자 모집

강원 속초시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자립 지원에 본격 나선다.

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I·II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I 은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돼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 II는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주가·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적립되어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33-639-2771)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속초/윤택훈기자 youth@jeonmae.co.kr

공공체육시설 임시 운영 박차

강원 원주시는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및 혁신과 반곡 테니스장이 각각 완공됨에 따라 경기장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주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은 오는 14일, 혁신 및 반곡 테니스장은 다음달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시는 임시 운영을 통해 경기장 운영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정식 개관 일정 및 이용료 징수 등 대관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기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인제군,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본격화

강원 인제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상기 군수 주재 제2차 역세권개발 추진단 회의를 열고 10개 부서 17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인제군 제공

인제/오경민기자 ojm@jeonmae.co.kr

안양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선정...4억 원 확보

구직단념 청년 발굴 1:1 상담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교육

경기 안양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돼 4억여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해 1:1 상담을 통한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교육 및 맞춤형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참여자 모집 예정이며, 1개월 내외의 단기 과정과 5개월 이상의 중장기 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50만 원,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참

여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등의 입·퇴소 청년 등이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관내 만 19~39세의 구직단념 청년들 또한 지역특화대상으로 참여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최대호 시장은 "계속되는 경제난에 구직 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무주택 신희부부 전월세 지원

경기 군포시는 '2023년 신희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신청인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이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군포/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용인시, 취약계층 난방비 20만 원 인상

경로당 40만 원·지역아동센터 100만 원 추가

아동그룹홈 60만 원...에너지바우처도 2배 인상

경기 용인특례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심화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 원 한도 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34곳도 이번달까지 100

만 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

인 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 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 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달 말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용인이웃자킴이'와 '찾아가는 복지상방'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두텁고 폭넓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퇴직 어촌계원 대상 퇴직금 지급 '화제'

충남 태안군 소원면의 파도어촌계(어촌계장 최장열)가 퇴직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에 나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약 250명의 어촌계원이 바지락을 캐며 생활하는 파도어촌계는 올해 어촌계를 탈퇴한 8명에 각각 15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파도어촌계의 퇴직금 지급은 그동안 어촌발달에 기여한 어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어촌계 적립금이며 연간 예산 잔액 중 일부가 퇴직금으로 사용된다.

최장열 어촌계장(52, 파도리)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파도리 어장은 그냥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어장을

일구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힘써오신 분들의 노고가 어린 터전"이라며 "이분들이 어촌계 탈퇴 후 병원비나 약값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어촌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파도어촌계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2년간 어촌계원 및 마을 이장과 부녀회

태안군 파도어촌계, 탈퇴 계원에 15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 지급...“복지어촌 성공 사례”

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적인 회의를 열었으며, 이들은 어촌계에서 생애 대부분을 바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지난 2021년 탈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최종 확정짓고 규약 및 정관 개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곧바로 시행에

돌입했으며, 올해 8명의 탈퇴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파도어촌계는 그동안 잔여 예산 전액을 계원 배당금으로 지급해왔으나 이제 퇴직금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한다. 배당금이 전년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지만 계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인근 의항어촌계에서도 계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계별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마을 스스로의 복지'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도 적극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최장열 어촌계장은 "복지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마을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시흥시, 광역버스 4개 노선 증차 운행

경기 시흥시는 1일부터 광역버스 4개 노선의 버스를 각1대씩 증차해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광역버스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 지난 9월 광역버스 3200번,

3301번, 3400번, 3500번 상용차 증차 수요가 확정돼 운수사와 협의 및 제반사항 등을 마무리해 운행을 개시했다.

이와 함께 상용차 증차 외에도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증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현재 시 광역노선 6개 노선(3200, 3300,

3301, 3400, 5609, M6410번)에 8회를 증차 및 증회해 운행하고 있다.

정석희 시 대중교통과장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광역버스입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광역버스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비비고 함께 갈게요.
따뜻한 밥 한끼와 맛있는 대화
소중한 사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정성으로 차리다 bibigo 비비고

오늘의 날씨

찬공기에 수은주 다시 ↓

2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1일 밤부터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생활지수: 운동 80, 외출 90, 빨래 90, 세차 90

“현장에서 답을 찾다”...이충우 여주시장 시민과 대화 성료

12개 읍면동 방문...주민과 대화 시정 소통 열기 '후끈' 신청사 이전부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등 대화나눠

민선 8기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12개 읍면동을 방문 '2023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가 지난달 31일 여흥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시장은 시의 고질적인 과제인 신청사 이전부지 확정,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 공급 관련 시의 이익 확대 등 주민 생활 및 발전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 개청 이래 최초로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는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목소리를 1200여 공직자들은 무겁게 받아들

여 개개인이 청렴과 민원 응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값진 결과로 이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는 시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약은 10년 발전의 초석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업체 20여 개 이상 유치를 위한 10개의 산단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증가 및 경제효과, 지역 사회 공업 화로 경제 활성화, 관내 학교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 LH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 등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소통했다.



이충우 경기여주시장이 12개 읍면동을 방문 '2023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여흥동 방문 모습.

또 여주초 신설 대체이전, 교육부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올해 실시 설계 착수와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수영장 등 여세권 학교복합화 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 WHO어르신 친화도시 인증으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과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가칭)강천역 신설 유치 등 다양한 사업과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 개발 부

에서 전년 분예산 대비 20% 이상의 증가는 농촌 경제와 시 전체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여주/김연명기자 Y1-kim@jeonmae.co.kr

과학 수사기법 총동원 불법유통 잡는다

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 도입 기존 1~2개월→2주로 단축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유통 행위 수사에 본격 나선다.

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시기와 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

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 행위, 3~11월 미등록 단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 대응 총력전

24시간 산불상황관리체계 유지

북부지방산림청은 1일 산불방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운영해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확산 및 도시지역·야간 산불 피해가 대형화되는 재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강화 및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지방청과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산불상황관리체계를 유지,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주/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보령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6일 종료...미등기시 효력 상실

충남 보령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접수기한이 오는 6일 종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에 대해 기한 내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지난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1989필지 토지 중 기각·취하된 520필지를 제외한 1469필지에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또한 확인서 발급 수령 및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김중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이전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등기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정선소방서, 소방시설 불법적재 신고시 포상

1회 5만 원 포상금 지급

강원 정선소방서는 1일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 내용은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화분 등으로 피난

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강원119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 및 시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상금 등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jeonmae.co.kr

세종시, 사랑의 온도탑 '149도 달성'...19억 600만 원 모금

지난해 12월부터 62일간 목표액 대비 49% 상승

세종시로 온정의 손길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넘어 149도를 달성했다.

시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상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2일간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진행해 총 19억 600만 원을 모금했다고 1일 밝혔다.

모금기간 중 개인 4375명이 5억 5121만 원을, 법인 224곳이 12억 2894만 원을, 기타 364곳이 1억 2633만 원을 기부하며 목표액 대비 49% 상승했다. 시는 2012년 희망2013 나눔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12년 연속



세종시가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진행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넘어 149도를 달성했다. (세종시제공)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다. 모금액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복귀시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따뜻하고 행복한 세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천안시, 노후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실태조사

2000년 이전 신고 시설 대상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노후된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축사 약취저감 및 관리기준 준수 의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현재 시에는 1122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허가·신고돼 있으며, 2000년 이전 최초 허가·신고된 시설은 418개소로 약 37%에 해당한다.

2000년 이전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규모 노후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약취저감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퇴비·액비 부족도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변경 신고 없이 배출시설의 규모 증설 여부 등이다.

유상원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시설 운영 관리 방안 사전 컨설팅 및 약취다발 사업장에 약취저감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성용기자 syk@jeonmae.co.kr

수원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경기 수원시는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교산·칠보산·청명산 등 등산객이 많은 산의 주요 등산로에 감시카메라 22대, 산불 감시탑 4개, 초소 26개를 설치·운영하며 산불 위험 요소를 감시한다. 산불차량 15대와 등짐펌프·괘뚜 등 진화장비 8159점을 확보했다.

또 산불임차헬기를 운영해 1주일에 2~3회 산불 종사원과 공직자가 주요 산림 지역을 지속 순찰한다.

산불신고대발기 66대 운영으로 순찰 중 산불을 발견 시 상황관리시스템에 음성, 영상, 위치 전송으로 신속 대응한다.

시는 용인·화성·안산시 등 인접 지자체,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산불전문기관과 협력해 업무담당자, 산불종사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선식기자 spark@jeonmae.co.kr

파주시, 현충시설 41개소 훼손 상태 등 일제 점검

경기 파주시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현충시설 41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현충시설을 찾는 추모객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보존상태를 높이기 위해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훼손 상태, 시설물 환경정비 및 안전상태, 주변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임진각 관광지와 파주 통일공원, 조리 봉일천에 집중 분포된 시설물 중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현충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기능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귀순 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는 현충시설 관리에 힘써 시민들과 유족들이 편히 찾아갈 수 있는 방문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임정일기자 imcl@jeonmae.co.kr

'삼척정월대보름제' 맞아 일반음식점 특별 위생 점검

강원 삼척시 보건소는 '2023년 삼척정월대보름제'를 맞아 축제 행사장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사전 식중독 예방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1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행사장 내 일반음식점 및 푸드트럭 포함 20개소이며, 식품·위생 감시공무원으로 구성된 3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시는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음식물 대량 가열·조리 후 실온 방치 금지, 무신고·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여부 등 조리시설의 전체적인 위생 상태를 합동 점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또한, 겨울부터 봄까지 많이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교육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사기간 동안 부정불량식품 및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빌라왕' 피해자 100명, 한달새 보증금 돌려받아

보증보험 가입자 656명 중 239명 변제완료...아직 417명 남아 HUG "순차적으로 변제 중...미가입자 경매 통해 피해 구제해야"

속칭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

어있는 656명 중 239명(36.4%)은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달

새 100명 늘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김씨 소유 주택 1139채에 세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14명으로 53.9%이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이 됐다.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며, 1억~2억 원은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에 달한다.
HUG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위변제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순차적으로 대위변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들도 최대한 조속히 변제를 완료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

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김씨 전세사기 피해자 카페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새로운 임차인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이거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다.
홍성수기자 HongSS@jeonmae.co.kr

사건·사고

개인강습 빌미 3억 가로챈 30대 실형

강습비를 챙기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환불정산비를 뜯어내는 등 3억 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 16명에게 강습비 또는 강습비 환불을 위한 비용 등을 명목으로 2억7530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채무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강습해주거나 강습비를 돌려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차 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60대 아버지에게 둔기 휘두른 30대

부산 영도경찰서는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손상살해미수)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15분께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60대 부친 B씨가 밥을 달라는 등 평소 잦은 심부름을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B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정대영기자 jdy@jeonmae.co.kr

진해구 이동 아파트서 5시간 넘게 정전

경남 창원 진해구 한 아파트 단지에 5시간 넘게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일 창원소방본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328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다.
정전으로 승강기 갇힌 사고 2건(1명, 4명)이 발생했고, 모두 구조됐다.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오전 1시에 정전을 복구했다.
한전은 아파트에 설치된 피뢰침과 구내 전기 설비인 개폐기가 파손되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콘텐츠 '모르고' 써도 부당이득 전부 돌려줘야"

저작권 무단 이용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쓴 사람도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수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사립 C 대학 등에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 대학은 이렇게 얻은 소스코드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씨에게 평생교육원 운영권을 넘겼다. 이후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안 A사는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B씨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였다. 1심과 2심은 B씨가 평생교육원을 포괄 인수했으므로 2014~2015년 C 대학의 잘못된 생긴 부당이득을 A사에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2016년 이후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부당이득을 본 사람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민법은 이런 경우 부당이득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구별한다. 자신이 부당이득을 보고 있음을 안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 전체의 반환 책임이 있고, 모르고 부당이득을 본 '선의의 수익자'는 남은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2심은 저작권을 '알고도' 침해한 C 대학(악의의 수익자)과 달리 저작권 무단 이용 경위를 몰랐던 B씨(선의의 수익자)가 2016년 이후 강의 콘텐츠로 남긴 이익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건 A사에 있고, A사가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으므로 B씨가 돌려줄 부당이득은 2014~2015년분에 그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B씨가 2016년 이후 강의 콘텐츠 무단 이용 부분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저작권을 무단 이용했다면 부당이득이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사가 입은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B씨가 강의 콘텐츠로 아무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은 한 통상적인 영업이익 상당의 현존 이익이 있다고 추정해야 하고,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남뉴스/정성조기자



항의하는 고양시민들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에서 열린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2차 설명회에서 참석한 고양시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만기자

차량용 온열 제품 안전 확인 신고 없이 유통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제품 10개 중 4개 누락·1개 허위신고 유해물질 검출 수입·판매사업자에 판매중지·품질개선 권고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안전 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차량용 온열 제품 13개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10개 중 4개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

증을 준용해 측정된 결과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던컴퍼니에서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위스트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지 및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

준을 준용해 측정된 결과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던컴퍼니에서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위스트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지 및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

http://www.udcenter.org

누구나 차별없이 소통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

여주시 장애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여주시 장애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자유로운 인간'을 지향합니다.

☎ 031-882-0787

경기 여주시 Movable/Accessible/Usable 장애인의증진기술지원센터 ATAC Amenity Technical Assistance Center For The Disabled, Etc.

구들나라 흙집이 사람을 살린다

EBS 극한직업 방영(여주 장작아궁이황토방) 2015.2.11 (본사 청우산업 개발자)

잘~잘지지는 장작구들방 전국 산과 밭에 있는 컨테이너를 교체해 드립니다.

▲2평형 구들(500만원) 화구는 주물, 온수관 설치, 황토시공, 초배지 마감
적용 : 벽체와 창문, 지붕을 마감하여 사용, 벽돌시공으로 완제품

▲적용사례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한옥 컨테이너 장작구들방(980만원~2,900만원)

▲가마솥구들방(보일러 겸용) (1,500만원) 가마솥에 장작구들방, 한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성 됨.
적용 : 벽돌시공, 원두막, 판넬(구입시 시공방법 알려드립니다)

▲3.5평형(2,900만원) 이동식 한옥 장작구들방

1일 연료사용 예) 참나무 장작 길이50cm x 폭20cm 3개면 종일 따뜻함

구들나라 www.hwangtotech.co.kr 010-5277-5255 / 031-882-8278

동정

공무원노조 출범식·이취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2일 오후 4시 제7대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 및 이취임식에 참석.

강릉김씨종친회장학금기탁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은 2일 오전 9시 10분 강릉김씨 종친회 동해시지회 장학금 기탁식에 참석.

도시생태지도 용역보고회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은 2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도시생태지도 용역 진행 보고회에 참석.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최재구 충남 예산군수는 2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제381회주례규칙심의회 김기용 충남 서천군수는 2일 오전 8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381회 주례규칙 심의회에 참석.

고품질인상생산경작인교육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는 2일 오전 9시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고품질 안전 인상생산 경작인 교육에 참석.



자치단체장 문화부문 대상 수상

조규일(사진 왼쪽) 경남 진주시장이 (사)우리글진흥원 주관 2022년 공공문장 바로쓰기 자치단체장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각종 안내문 등을 알기 쉽고 정확한 글로 선보이고, 공직자 국어능력 향상에 애쓰면서 공공문장 바로쓰기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문화도시로서 시정 가치와 부합하는 시정을 추진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규일 시장은 "공공기관이 바르고 쉬운 우리글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국어능력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이청자 신임 대장 취임

제6대 강원 정선군 남면 여성이용소방대장으로 1일 취임한 이청자(59) 신임 대장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여성이용소방대를 만들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 대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여성이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몸을 던지는 대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행정의 벽 낮추고 군정 만족도 높일 터”

전진선 양평군수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마무리 12개 읍면 총 922명 군민 참여...총 450여건 의견 접수

경기 양평군은 전진선 군수가 지난 9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지난달 31일 청운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통한마당'에서는 12개 읍면에서 총 922명의 군민이 참여해 올해 군정계획·주요사업과 지역별 이슈와 건의사항 등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수해 피해의 조속한 복구, 마을안길 도로분쟁 해결, 마을 도로 확장, 하수 처리, 상하수도

신설, 도시가스 설치, 마을회관 보수, 산책로 및 자전거길 조성 등 총 450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지역별 주요의견은 양서면 분면 추진, 양수리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양평읍 인구 증가 대비 도로 및 인프라 확충, 옥천면 한화콘도 영업 중단에 따른 군차원 계획, 용문면 추읍산 관광자원 개발, 의병발원지로서 지평면 관심 요청, 양동면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등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 주요 국·소장 및 부서장이 함께해 군민들의 제안사항, 건의사



전진선 군수가 지난 9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진행한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지난 달 31일 청운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양평군 제공)

항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으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며 신뢰도를 높여 참여한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진선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가이어서 행정의 벽을 낮추고 군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의왕시의회의는 전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 의원 “여성 비정규직 개선 나서야”

의왕시의회,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 의왕시의회의는 전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한채훈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8월 기준 전체 37.5%, 남성은 30.6%인 반면, 여성은 46%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김성호 부소장은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정부 차원의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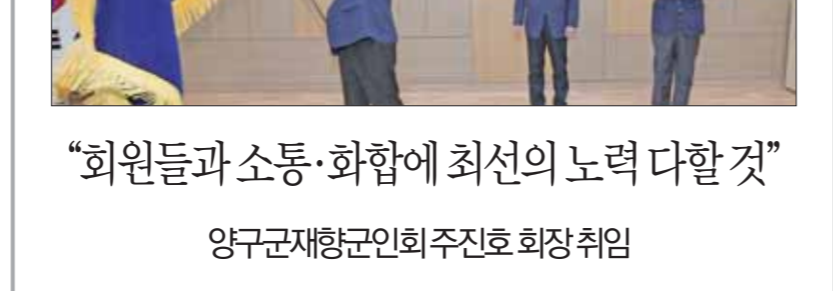
동정책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시군 가운데 노동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의왕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진 자유토론에는 김한수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이동현 국회 박성준의원실 보좌관,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가 차례대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왕/ 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회원들과 소통·화합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양구군재향군인회 추진호 회장 취임



강원 양구군재향군인회는 최근 제62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 행사(사진)를 가졌다.

이날 회장 이·취임식에는 강원도재향군인회 흥만기 부회장, 한기호 국회 국회의원,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한 도군 의원, 보훈단체장, 사회단체장, 향군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진호 신임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주 회장은 총복 보은 출신으로 약 34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 2009년 육군 준위로 퇴직 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양구군재

향군인회 부회장, 무공수훈자회 양구군 지회장, 양구군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양구군 지적발달장애인협회 부위원장, 양구군 민선8기 군정 인수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양구읍 중1리 마을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구군재향군인회는 1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안보교육 및 현장 견학사업, 6.25참전용사 생계보조비 및 청소년 장학금 지원, 6.25전사자 유해 발굴현장 위문, 사랑의 쌀 나눔, 저소득 보훈가정 LED전등 교체, 김장 나눔 봉사, 자연환경 정화 및 환경감시, 제대군인 정착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안양시 시승격 50주년 신년음악회 개최

오늘 오후 7시 30분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경기 안양시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신년음악회가 2일 오후 7시 30분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지난해 제4회 제주 세계청소년합창페스티벌&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Gloria in Excelsis Deo!’, ‘목련화’, ‘Motor Car Race’로 서막을 열고, 성결대콘서트과 이어, 동안구역성합창단, 에토스콰이어, 안양대학교 콘서트콰이어, 더러운 합창단과 늘푸른합창단 등이 ‘지금 이 순간(지킬엔하이드)’, ‘Fly me to the moon’, ‘아름다운 나라’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무대에 오른다.

수도군단사령부 군악대 중창단도 ‘독립뮤지컬 메들리’와 ‘미인’으로 특별무대를 선보인다.



안양시립합창단은 ‘전래놀이 노래’와 ‘벚꽃노래’로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경기 광주 ‘남한산성면 착한 식사 Day’ 기부 행사

7일 송가네 막국수서... “소의 계층에 따뜻한 마음 전달”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7일 송가네막국수에서 ‘남한산성면 착한 식사 Day 이웃사랑 한 그릇 기부 사업’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송가네막국수와 남한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남한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송가네막국수 송용훈 대표는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영수 공동위원장은 “관내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고향사랑 기부 담례품 재기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사진)이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에 따른 담례품을 다시 기부했다.

1일 청양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이 담례품으로 선택한 청양산 무농약 쌀 39포대(150만 원 상당)를 고향인 청양군 장평면 지역 경로당 27곳에 전달했다.

윤 회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청양군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윤 회장은 “어렸을 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고향 어르신들께 약속하지만 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청양/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포토뉴스



이재영 경기도의회 생태하천 조성사업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민주·부천3)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상동 시민의 강 개보수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충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보령아산·신제일 병원 협약

충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은 전남 보령아산병원 및 신제일병원과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령/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순천시소방서 소방드론 운용자 특별구조훈련 실시

전남 순천시소방서는 최근 다목적 전술훈련당 등 당사일대에서 소방드론 운용자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길원 대기자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신년 인사회

강원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삼척 쉼비치&리조트 연회장에서 ‘2023년 삼척시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삼척/ 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고성군 제15기 농업인대학 사과 심화반 입학식

강원 고성군 제15기 농업인대학 사과 심화반 21명 입학식이 지난달 31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관에서 열렸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소비자교육 정선군지회 장학금 100만 원 기탁

소비자교육 강원 정선군지회(지회장 윤계화)는 1일 정선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정선장학회 이사장인 최승준 군수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양평군-산림조합, 민관협력형 산림사업 업무협약

경기 양평군은 지난달 31일 양평군산림조합과 ‘민관협력형 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서길원 大記者의 독자와 함께 詩 읽기

마음의 집

마음의 집

홍영철 작

홍영철 시인

대구 출신으로 197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와 '문학사상' 신인 발굴에 당선되어 등단.

집으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사당동 쪽으로 가도 영등포 쪽으로 가도
 서초동이나 신림동 쪽으로 가도 집이 나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참 많기도 합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 가끔 길을 잃습니다.
 몸이 때때로 방향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마음도 때때로 어지럼증을 일으킵니다.
 마음에도 길이 많아 헤매나 봅니다.
 어디로 가야 제집이 나올지
 잘 모를 때가 있나 봅니다.
 마음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느라
 몸이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책상 위의 제라늄이 아파보입니다.
 내가 나에게 미안합니다.

(2012년)

〈함께 읽기〉 살다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길이 너무 많아서 헤매 때가 있다. 어느 길이 더 편할까, 아니면 더 빠를까. 이 길로 가면 편할까, 저 길로 가면 더 편할까 이런 고민을 떠나기도 전에 하다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때가 많다.

“집으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못 한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처럼, 이 길을 가지 않고 저 길을 간다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제 시를 열심히 읽은 독자들은 여기서 집으로 가는 길이 꼭 집으로 가는 길만 가리키지 않음을 다 알았을게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즉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이 때때로 어지럼증을 일으킵니다 / 마음에도 길이 많아 헤매나 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에도 길이 나 있다. 문제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개라는 점이다. ‘험릿’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식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느라 / 몸이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몸의 집으

로 가는 길이 많으면 몸이 피로해지고, 마음의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피로해진다.

한데 마음의 길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열정이 많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마음에 생각이 많아지니까, “책상 위의 제라늄이 아파보입니다 / 내가 나에게 미안합니다” 마음의 길을 찾는 일이 쉽지가 않다. 그러기에 때론 몸이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마음이)’ 나에게(몸에게) 미안하다. 책상 위의 제라늄(꽃)이 아파 보임은 나의 감정이 제라늄에게 이입됐음을 뜻한다. 제라늄 자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아프기에 제라늄도 아파 보인다. 이는 마치 ‘새가 노래하고 있다.’와 ‘새가 울고 있다.’와 같다. 자신의 마음이 기쁠 때는 새가 노래하고, 슬플 때는 울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새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가는 길은 많다. 다만 어느 길을 갈까 망설이기보다 먼저 첫걸음을 떼는게 중요하다. 떠나기 전에 걱정하기보다는 걸어가면서 길을 찾아가시기를...

경제 역성장 속 재정확대 바람직

올해 국내 경제의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도 부진해 올해도 전망 좋지 않아 하방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4분기 성장률은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한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수출 회복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지난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던 점이 역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0.5%)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방역 조치가 해제된 지난 4월 이후 대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 2분기 2.9%, 3분기 1.7% 증가했다. 하지만 4분기 들어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줄면서 다시 0.4%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실질 구매력 증가세가 약해지고,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역자산효과가 발생한 점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황상필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팬데믹 수요(보육·지연 수요)가 많이 올라와 2~3분기 민간소비가 회복됐는데 (4분기에) 조정을 받았다”면서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이차수요가 줄어들면서 가전 등 내구재 소비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월 수출액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와 스마트폰 등 전자사업부의 부진과 더불어 4분기 환율급락에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어닝쇼크를 기록

한 것으로 보인다.

철강도 지난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감소하더니 결국 9월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디스플레이(-1.1%), 선박(-20.8%), 무선통신기기(-10.4%)도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소비와 수출의 부진은 재정을 통한 정부 소비가 겨우 매웠으며, 민간 기여도는 -1.1%p였지만 정부 기여도는 0.8%p였다. 다시 말해 민간 소비와 순수출 등 민간 부문에서 성장률을 끌어내렸지만 정부 소비 등을 통해 겨우 추가 하락을 막은 셈이라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경제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하방 리스크가 커지며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 부진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경기부진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보안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간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우려되면 증세를 통해 증세한 만큼 지출하면 국가채무에 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길 바란다. 내수가 활성화돼야 내수경기를 살아낼 수 있다.

정부 당국은 경제정책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제정 확대를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하고 재정을 확대해 추진할 사업들을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활이 윤택해질 것으로 보인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인분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5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정동, 예능빌딩) /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8-4360 / 홈페이지 jeonmae.co.kr

외부 필진의 칼럼, 기고, 독자투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독자투고

조원근

전남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재가 발생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평소 들은 대로 ‘대피 먼저’ 하려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다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그 예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있다. 전체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나온 건물 2층 여성용 목욕탕에서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소방법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충수장치를 고장 난 상

태로 방지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및 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지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및 잠금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및 폐쇄·훼손 ▲방화구 확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및 방화문 폐쇄·훼손 등이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많은 시민의 관심이 모여야지만 생명의 문을 활짝 열고 화재 시 우려되는 인명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건물의 관계인뿐만 아니라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소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 나면 대피 먼저’를 들어봤을 거다. 과거에는 신고나 초기 진화가 우선이었지만 최근에는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나 병원 등에서 화

전국매일신문 jeonmae.co.kr

대표전화 1588-5762
 정치부 031-755-5600
 경제부 031-752-0256
 사회부 031-755-3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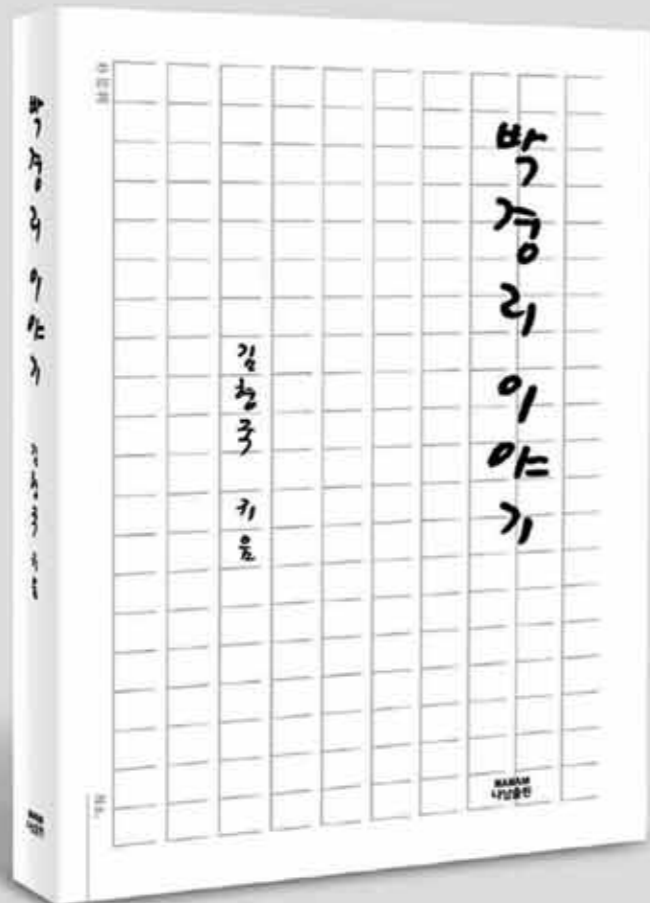
지방부 031-755-5622
 광고문의 070-4325-3858
 FAX 031-758-4360

1997년 6월 24일 정간등록번호 가-438(일간지)
 본사등록사 : 중구 요령동1가 101-1호 조신문화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 편집 인력: 최은 박종문 사원 박종필 편집국장 이일영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정동, 예능빌딩)

전국취재본부	서울본부	02-749-0922	세종본부	044-865-8000
인천본부	032-751-1478	강원본부	033-251-8866	
대구본부	053-471-1111	충남본부	041-668-3722	
광주본부	062-361-0145	충북본부	043-255-8877	
경기북부본부	031-967-1616	제주본부	064-723-1950	
경남본부	055-761-7882			



박경리 이야기

김형국(서울대 명예교수) 지음

“인생이 온통 슬픔이라더니!”

파란만장한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 박경리의 삶과 문학

《토지》의 작가 박경리와 30여 년간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가 엮은 박경리의 삶과 문학.

지극히 불운하고 서러운 자신의 삶을 위대한 문학으로 승화시킨

‘큰글’ 박경리를 다시 만난다.

신국판 | 32,000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Ski Half-Pipe in Freestyle HP

국내 유일의 휘닉스평창하프파이프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고의 스키하프파이프 코리아 오픈 전국매일신문에서 주최하고 대한스키협회와 함께하여 전연령층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프리스타일 이벤트



2023 전국매일신문배 코리아오픈 스키하프파이프 대회

2023. 02. 03 / 금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전용슬로프

- 주 최 | 전국매일신문
- 주 관 | 플레이영
- 후 원 | 강원도·강원도의회 · 경기도체육회 · 대한스키협회
- 종 목 | 하프파이프 스키
- 참가대상 | 초·중·고·대학·일반부 스키어
- 시상부문 | 전 종목 1·2·3위

※ FIS(국제스키연맹)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룰과 경기운영방식에 근거하여 운영